

주일 예배 10시 50분

2018년 5월 13일(둘째 주)

*표의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자의 목상

예배로의 부름		인도: 김성진 집사
찬양		
*기도	주기도문	다 함께
*찬송	주 우리 하나님(14장)	다 함께
*교독문	80번	다 함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569장)	다 함께
기도		김성진 집사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220장)	다 함께
말씀		고명환 목사

-신앙의 길 8: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
(누가복음 14장 12-14절)

*찬송	맘 가난한 사람(427장)	다 함께
교회소식		담당자
기도		담당자

교회소식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꼭 참여해 주세요.

-Happy mother's day!

-금주 읽을 성경: 시편 53-59편, 디모테 전후서

-우리의 기도:

1.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명 속에 자라게 하소서
2.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3.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4. 청소년 젊은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모임시간 주일 10시50분, 수요일 오후 7시, 월-금 오전 5시20분, 토요일 오전 6시

답는 자

누가복음 17 장에서 양떼 먹이고 밭 갈던 종처럼 스스로는 무익한 자임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께 돌아와 나의 신뢰의 뿌리를 주님 안에 두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곁에서 주님의 종, 주의 돕는 자로 사는 이 모습은 얼마나 기대감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이러한 의미에서 '돕는 자'란 이 축복된 의미는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 되고 행복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돕는 자'라는 예수님과의 이 즐겁고 끊임없는 사랑!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주님과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며 나의 주님을 우편에 모시고 '그분 곁에'라는 이 참으로 가까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자리에 서서,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관해서는 주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하지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돕는 자로 서본다면, 이 축복은 얼마나 귀한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지요!

돕는 자!!

내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이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돕는 자로 영원히 그의 돕는 자로 길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당신 없이는

신용우

주님

나 당신 없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슬픈 사랑은 원치 않아요

어찌 나

어머니의 행복을 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찬비 내린 후
시들어 버릴 목련 같은 사랑은
너무 아파요

주님

나 영원하신
당신께 속해
내 어머니를 사랑하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김남희

어릴 적
연약하신 부모님 곁을 떠나
할머님 곁에서 지내는 날들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미 자녀들을 모두 키워내신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으로

사랑하며 정성껏 거뒀하신 고마움
새겨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하여
눈에 좋아 보이던 것에
몸도 마음도 모두 빼앗겼던 시간들
너무 죄송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들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와 주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며,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 준비 해놓으시고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며
기다려 주신 주님!

그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이 같으신 손길과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 보잘 것 없는 자
이 세상에 잠기지 않으려
주님과의 사귀를 소중히 여기며
순간순간 주님 붙들고
오늘의 주님께 매이고자 애써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PALOUSE KOREAN CHURCH



2018년 5월 13일(19주)

1205 SE Professional Mall Blvd Suite 115

Pullman, WA 99163

Phone 978-807-4092

Website: pullmanpkc.org